



습근평, 조선로동당 총비서이며 국무원장인 김정은과 회담



▲ 9월 4일 저녁, 중공중앙 총서기이며 국가주석인 습근평은 북경 인민대회장에서 중국인민항일전쟁 및 세계반파쇼전쟁 승리 80주년 기념행사 참석차 중국을 방문한 조선로동당 총비서이며 국무원장인 김정은과 회담을 가졌다. / 신화사 기자 황경문

[북경 9월 4일발 신화통신] 9월 4일 저녁, 중공중앙 총서기이며 국가주석인 습근평은 북경 인민대회장에서 중국인민항일전쟁 및 세계반파쇼전쟁 승리 80주년 기념행사 참석차 중국을 방문한 조선로동당 총비서이며 국무원장인 김정은과 회담을 가졌다.

습근평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중국과 조선은 운명을 함께하고 서로 도움을 주는 좋은 이웃이자 좋은 벗이고 좋은 동지이다. 중조 친선은 력사가 유구한바 량국은 모두 공산당이 령도하는 사회주의국가이자 같은 리상 신념과 분투목표를 갖고 있다. 김정은 총비서가 중국인민항일전쟁 및 세계반파쇼전쟁 승리 80주년 기념행사 참석차 중국을 방문한 것은 제 2차 세계대전 승리 성과를 지키려는 조선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고 중조 량당과 량국이 친선협력 관계를 한층 더 발전시키는 데 중요한 계기를 제공했다.

습근평은 조선로동당 창건 80주년을 축하하고 나서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당면 중국은 중국식 현대화로

강국건설과 민족부흥의 위업을 전면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조선은 사회주의건설에서 부단히 새로운 성과를 이룩하고 있다. 중조 친통 친선을 깊이 중시하고 있는 중국 당과 정부는 중조 관계를 잘 수호하고 잘 다지며 잘 발전시키기를 바란다. 국제 정세가 어떻게 변하든 이 립장은 변하지 않을 것이다. 중국은 시종일관 조선이 자국 국정에 부합되는 발전의 길을 걷고 조선 사회주의사업의 새 국면을 부단히 개척하는 것을 지지한다. 중국은 조선과 함께 고위층 왕래와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고 당과 국가 차리 경험교류를 심화하며 상호 리해와 친선을 심화하길 바라며 여러 차원의 교류를 밀접히 하고 제 분야 실무협력을 전개하길 바란다.

습근평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전례없는 글로벌 도전에 직면하여 내가 선호하여 제기한 인류운명공동체 구축 리념과 글로벌 발전장의, 글로벌 안보창의, 글로벌 문명창의, 글로벌 관리창의는 조선의 적극적인 지지와 호응을 받았다. 중국과 조선은 국

제와 지역 문제에서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고 공동 리익을 수호해야 한다. 조선반도 문제에서 시종일관 객관적이고 공정한 립장을 견지하고 있는 중국은 조선과 계속 조력을 강화하고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기 위해 진력할 것이다.

김정은은 다음과 같이 표했다. 성황리에 개최된 중국인민항일전쟁 및 세계반파쇼전쟁 승리 80주년 기념행사는 전세계의 주목을 받았는데 이는 세계 평화를 수호하려는 중국의 확고한 결심을 보여주고 중국의 중요한 국제적 지위와 영향력을 뚜렷이 과시했다. 조선과 중국의 로세대 지도자들은 항일전쟁에서 두터운 정을 쌓았다. 우리는 이를 세세손손 전승할 의무가 있다. 국제 정세가 어떻게 변하든 조중 사이의 친선의 감정은 변할 수 없으며 조중 관계를 부단히 심화 발전시키는 것은 조선의 확고부동한 의지이다. 조선은 대만, 서장, 신강 등 중국의 핵심리익에 관련된 문제에서 중국의 립장을 확고히 지지할 것이며 중국이 국가주권과 령도완정을

수호하는 것을 전적으로 변함없이 지지성원할 것이다. 중국이 장기간 조선의 사회주의사업을 확고히 지지하고 소중한 지원과 도움을 준 데 대해 감사를 표한다.

김정은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습근평 주석의 확고한 지도 아래, 습근평 세시대 중국특색 사회주의사업의 인도 아래 중국은 위대한 발전 성과를 거두었다. 조선은 량당과 량국의 여러 차원의 왕래를 밀접히 하고 당건설과 경제 발전 등 분야의 경험교류를 전개하여 조선 당과 국가 건설사업 발전에 조력하길 바라며 량국이 호혜상생적인 경제무역협력을 심화하고 더 많은 성과를 거두길 바란다. 조선은 조선반도 문제에서 중국의 공정한 립장을 찬양하며 유엔 등 다자 플랫폼에서 계속하여 조력을 강화하여 쌍방의 공동 리익과 근부 리익을 수호하기를 바란다.

이날 저녁, 습근평은 김정은과 소규모 티타임과 연회 시간을 가졌다. 채기, 왕의가 상술한 행사에 참가했다.

우리 나라, 6G 무선통신 분야 새로운 돌파

우리 나라 과학자들은 최근 초광대역 광전융합통신 시스템을 성공적으로 개발하여 최초로 전 주파수대역의 유연하고 조정 가능한 고속 무선통신을 실현했는데 이로 인해 앞으로 더 원활하고 신뢰할 수 있는 6G 무선통신이 보장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성과는 8월 27일 저녁 (자연)잡지에 온라인으로 발표되었다.

6G는 차세대 무선통신 네트워크로서 다양한 정경에서 여러가지 주파수대역의 무선신호를 고속으로 전송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전통적인 전자학 하드웨어는 단일 주파수대역에만 적용되며 주파수대역이 부족한 부품들은 또한 설계, 구조, 재료가 각기 달라 주파수대역간 또는 전 주파수대역 범위에서의 작업을 실현하기 어렵다.

이를 위해 북경대학, 항항도시대학으로 구성된 연합연구팀은 4년에 걸쳐 초광대역 광전융합통신 시스템을 독자적으로 개발했다. 이 시스템의 무선신호는 0.5기가헤르쯔부터 115기가헤르쯔 범위내의 모든 주파수 지점에서 고속 전송을 실현할 수 있는바 이 전 주파수대역 상호 전환 능력은 국제적으로 앞서있다. 이 시스템은 또

한 유연한 튜닝(調諧) 능력을 가지고 있어 신호가 간섭을 받을 때 안전한 주파수대역으로 동적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통신채널을 설정할 수 있기에 통신의 신뢰성과 주파수 리용 효율을 향상시킨다.

“이 기술은 마치 드넓은 고속도로를 건설한 것과 같은데 차량이 전자신호이고 차선이 주파수대역이다. 과거에는 차량이 한두 차선에서 달림으로 인해 붐볐지만 이제는 선택할 수 있는 많은 차선을 가지고 있다. 한 차선이 막히면 차가 유연하게 차선을 변경할 수 있어 더 빨리 달리고 길이 막히지 않을 것이다.” 북경대학 전자학원 부원장 왕홍군교수가 말했다.

왕홍군은 AI 알고리즘을 삽입함으로써 이 새로운 시스템이 더 유연하고 지능적인 AI 무선네트워크를 탄생시킬 것이라며 다양한 복잡한 상황에 응용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실시간 데이터 전송과 환경의 정밀한 인식을 동시에 실현할 수 있으며 자동으로 방해신호를 회피하여 네트워크 신호 전송을 더욱 안전하고 원활하게 만들 수 있다고 밝혔다.

/ 신화사

제 1 자동차 - 폭스바겐, 곧 새 회사 설립

최근, 중국제 1 자동차그룹과 폭스바겐그룹(중국), 성도경제개발구관리위원회는 성도에서 <제타사업발전협력협약>을 체결하고 제타(捷达) 브랜드의 새 회사를 설립하여 공동으로 제타를 사천성 자동차산업의 선두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준비에 나섰다.

중국제 1 자동차그룹 당위 서기이며 리사장인 구원동은 “이번 계약은 중국제 1 자동차그룹이 국가의 고수준 대외개방 정책에 적극 호응하고 ‘일대일로’ 구상과 서부대개발 전략을 깊이 실천하는 생동한 실천이다. 제 1 자동차-폭스바겐은 중국과 독일 량측의 우세를 충분히 융합하고 현지화 운영 효율을 높이며 자체 연구개발 능력을 강화하고 합작기술 신고지를 만들어 사천 자동차산업의 고품질 전환 발전과 제타 브랜드의 ‘본토 경작, 해외 복사’를 위해 새로운 에너지를 주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제타 브랜드 새 회사는 성도생산기지의 장기적인 배치에 립각하여 제타의 기존 자원을 전면적으로 통합하고 중국 본토의 연구개발과 성숙한 공급사슬 체계에 의탁해 더욱 충분한 자주적 결정권과 운영 령활성을 얻어 더욱 빠른 시장 응답과 더욱 깊은 현

지화 융합을 실현하고 진정으로 생산과 판매 일체화 사슬을 뚫음으로써 상품 혁신에서 시장 서비스에 이르기까지 고객의 수요에 더욱 부합하는 이동 체험을 전방위적으로 창조할 것이라고 한다.

“지금까지 고전적인 제타 모델은 이미 5백여만명의 중국 고객에 편리한 개인 이동 출력을 제공했다. ‘중국에서, 중국을 위하여’ 전략을 계속하여 우리는 전기 스마트 네트워크 자동차 시대에 제타 브랜드의 성공적인 장을 계속 써내려갈 것이다.” 폭스바겐그룹(중국) 리사장 겸 수석집행관 베레드 폴크는 “그들은 제타의 전동화 전환을 통해 고속 성장하는 엔트리급 신에너지 자동차 시장을 배치하고 중국 본토 시장과 새로운 자동차 시장을 더욱 광범위하게 세분화함으로써 폭스바겐 시장에 대한 협력을 더욱 심화시키고 호혜상생의 결심을 이루겠다.”고 말했다.

제타 브랜드는 2028년까지 4종의 신에너지 제품군을 포함한 5종의 새로운 상품을 출시할 계획이다. 그중 첫 모델은 2026년에 출시해 판매량 도약이라는 전략적 목표를 달성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 유경봉기자

심양 - 장백산 고속철도, 승객 신고 시범운영

9월 4일, 심양북역 1호 플랫폼에서 CR400bf-g 열차가 승객의 탑승을 기다리고 있었다. 8시, 열차가 천천히 플랫폼을 떠나면서 동북지역의 중요한 대형 고속철도인 심가(심양-가목사) 고속철도 심백구간(심양-장백산, 이하 ‘심백고속철도’)이 시범운행을 시작했다.

승객 탑승 시범운영 시물레이션은 심백고속철도 정식 개통 운영전의 마지막 ‘뭉뚱기’로 이 기간 국가철도그룹 심양국은 시범운영시행 기본운행도를 시물레이션하여 고속열차 운행을 조직하게 된다. 배차, 려객운송, 운수, 수리 등 모든 작업은 정식 개통 운영후의 표준에 따라 진행, 각 시스템과 전체 시스템의 적응성과 안정성을 검증하고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송 조직 방안을 완성한다.

심백고속철도의 본선은 심양북역에서 시작하여 심양시, 무순시, 통화시,

백산시, 연변조선족자치주를 포함한 5개 도시(현)를 거쳐 장백산역에 이르는데 전체 길이가 약 430킬로미터이고 설계시속은 350킬로미터이며 심양북역, 백관역, 무순역, 동한가역, 신빈역, 통화역, 백산동역, 강원동역, 장백산서역, 장백산역 등 총 10개 기차역이 있다. 전 구간에서 새로 건설된 터널은 85개, 다리는 175개이며 본선 량량 및 터널 비율은 약 77%에 달한다.

심백고속철도는 국가 ‘제 14차 5개년 계획’의 핵심 프로젝트로 ‘8종 8형’ 고속철도 주요 통로의 지역 령결선이자 동북 고속철도망의 중요한 구성부분이다. 개통후 북경조양역, 심양북역에서 장백산역까지의 최단 려행시간은 각각 4시간 33분과 1시간 53분으로 지금보다 각각 1시간 23분과 1시간 31분 단축된다.

/ 인민넷 - 조문판



변경에서 량만을 빛다

연변 8쌍 련인 합동결혼식

최근, 중국철도심양국그룹유한회사 연길차무단은 전통 명절 칠석을 맞으며 ‘백년 철도에서의 약속, 손잡고 흰머리 될 때까지’를 주제로 한 제 4회 중업원 합동결혼식을 치렀다. 연변지역 철도 1선에서 근무하는 8쌍의 련인인 장백산기슭에서 결혼 서약을 맺고 변경을 매개체로, 철도를 증인으로 제 2의 인생을 시작했다.

/ 글 유경봉기자 / 사진 연길차무단